

대가야 멸망 가야 제국(諸國)의 마지막 희망 꺼지 다

562년(진흥왕 23)



고령 지산동 고분군
/ 국가문화유산포털(문화재청) /

1 개요

금관국(금관가야)이 멸망한 후 가야 제국은 신라에 의해 멸망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중 안라국(아라가야)은 백제의 지원을 받아 가야를 부흥시키고자 하였지만, 백제는 이러한 안라국의 노력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 양국이 가야를 복속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여 내부적인 통합을 꾀하였으나 이 역시 실패하고 말았다. 결국 가야는 자신들을 적극적으로 병탄하려 하였던 신라에 대항하여 백제의 편에 설 수밖에 없었다. 이후 가야는 백제의 한강 유역 탈환 작전에 참전하였으나, 백제가 신라에 의해 한강 유역을 빼앗기고 관산성 전투(554)에서마저 참패하면서 가야 또한 적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된다. 이후 군사적·행정적 준비를 마친 신라가 560년에 안라를 멸망시켰다. 그리고 562년 신라 명장 이사부가 이끄는 신라군의 공격에 대가야가 무너지면서 가야 제국의 역사는 종막을 고한다.

2 가야 제국의 위기와 백제

532년 신라에 의해 금관국(金官國, 김해 금관가야)이 멸망하였다. 그리고 10여 년 뒤 탁순국(濲淳國, 의령)마저 멸망하자 가야(加耶) 제국(諸國)은 그 존립마저 장담할 수 없는 위기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안라국(安羅國, 함안 아라가야)은 신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웠던 탓에 다른 누구보다 커다란 위기를 느꼈다. [관련사료](#) 점차 증대되는 신라의 압박에 안라국은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한편, 이 무렵 북쪽의 대가야(大伽倻, 고령)는 섬진강 방면의 4개의 현과 기문(己汶)·대사(帶沙) 지역을 두고 백제와 분쟁을 벌이고 있었다. 백제와의 대립이 심해지자 대가야는 서쪽의 백제를 견제하기 위해 동쪽의 신라에 접근하여 관계를 맺고자 하였다. 그러나 신라에 의해 금관국 등이 멸망하자 대가야는 신라마저도 신뢰할 수 없게 되었다. 그 결과 대가야는 백제와 신라 양측 모두와 대립각을 세우는 상태가 되었다.

신라로부터 압박을 강하게 받고 있던 안라국은 대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결국 안라국은 백제·신라와 대립하고 있는 대가야를 배제하고 백제와의 화의를 통한 외교적 대응에 주도적으로 나서는